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지난해 세 차례 중국 방문에 이어 올해 첫 방문이니 벌써 네 번째 방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늘 남북 및 북미 협상을 전후하여 중국을 방문하였다. 첫 번째 방문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3월이었다. 2차 방문은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5월이었는데 중국과 회담 전략을 논의하였다. 6·12 센토사 회담 직후 단행된 3차 방문에서는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현재의 네 번째 방문을 통해 향후 북한의 전략을 가능해 볼 수 있다.

첫째, 올해 벅두부터 단행된 김 위원장의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지난해 북미 고위급회담이 무산된 이후 이렇다 할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전개되지 못했다. 완전한 비핵화가

북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지 제재 완화를 유보하는 미국에 대해 북한은 상응 조치를 요구해 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지난 신년사에서 미국이 일반적으로 강요하고 제재와 압박을 유지한다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이러한 교착 국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도 긍정적으로 회답하였다. 며칠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위한 장소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 안에 발표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북미 간 일정 부분에서 조율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북한은 핵 동결을 토대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최우선적 목표로 들 것이다. 한편 신년사에서 제안한 바 있는 평화 체제 다자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와 다자를 병행할 경우 체제 보장을 위한 안전판을 보다 신속하고 정교

하게 짜 나갈 수 있다. 북한이 상응 조치로서 요구해 왔던 중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도 동시에 다룰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참여를 공식화할 수 있다. 그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부침을 느껴 왔던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적절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번 방중 수행원으로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등 북미 협상 팀이 총 출동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로드맵을 중국과 협의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셋째, 지난해 세 차례의 중국 방문은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배려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중국과의 밀착 관계를 더욱 높여야 하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중 간 무역 협상을 앞둔 틈새의 시점에 방중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또한 미중 간 무역협상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협상 전략이 휘둘리지 않도록 중국 측에 당부를 요청할 필요도 있다.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김 위원장은 많은 문제들을 중국과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이번 중국과의 협의 이후 바로 북미 정상회담 준비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 도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나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기대하고 있으나 북한이 호응

할지는 미지수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열릴지 후에 열릴지 불투명하지만 각기 장단점이 있다. 만약 북미회담 전에 열릴 경우 북미 정상회담에 호응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는 것일지, 리수용, 리용호 등 북미 협상 팀이 총 출동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로드맵을 중국과 협의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이번 북중 협의가 북미 정상회담에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김영철 통전부장의 방미나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여타 고위급이나 실무급 회담도 뒤따라야 한다.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정말 중요하다. 비핵화 협상이 계속되느냐 지시부진하느냐의 분수령이 된다. 한반도 비핵화의 명운이 달려 있다. 우리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협상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마지막까지 한미 간 조율이 중요하다. 특사 방북 등을 통해 북한과도 소통 채널을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칼럼

우리의 소박했던 삶을 되찾자



황성호
영남 신복성당 주임신부

제가 사목하는 영남 신복 성당은 시골 성당이지만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다. 저는 작년 2018년 마지막 주일 미사 중에 주일 학교 친구들에게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어 보았다. 예나하면 2019년 새해에는 친구들이 기쁘고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기를 바라고 때문이었다. 친구들이 이런 저런 대답을 하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큰 소리로 "돈이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나머지 15명이 동시에 노래를 부르듯이 "돈! 돈! 돈!"하고 외쳤다. 친구들이 즐거움이나 행복이라고 대답하길 원했다. 그러나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대답에 마음이 답답했다.

2015년 12월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직 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고교생의 56%, 중학생의

39%, 초등학생 17%가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응답했다.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조사에 고등학생 45%, 중학생 30%, 초등학생 19%가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이 답변이 참 서글프다.

그런데 우리의 청소년들이 왜 이런 답을 하는 것일까? 세계의 모든 언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속담이 있다. 설문 조사 발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소년들의 대답은 그동안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회적 문제나 이슈들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와 어른들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설문 조사 결과처럼 그렇게 응답한 것이 아닐까?

우리 사회는 왜곡된 자본주의에 묻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교육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경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모든 가치의 중심은 인간이다. 그런데 그 가치가 땅에 떨어져 찾아볼 수가 없다. 가정 불화와 파교, 높아지는 이혼율, 청소년 범죄의 증가, 학

교 폭력, 자살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상처받고 아파한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아픔을 안아 줄 것인가? 그리고 누가 청소년들을 즐거움과 행복의 삶으로 이끌어줄 것인가?

불과 20~30년 전 만해도 우리의 삶은 참 소박했다. 우리는 꾸밈이나 거저이 없이는 수수함을 지녔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았다. 저녁에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늦게 귀가하는 아버지의 소박한 선물인 굴과 통닭으로 가족이 오순도순 나누었다.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조금씩 모아 함께 나누기도 했고, 장래나 슬픈 일을 겪는 이웃들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했다.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았던 이웃들과 함께 서로의 아이들을 보살피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이 자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었고, 서로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소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소박했던 삶은 새로운 신으로 등장한 '돈'에 의해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서로의 관계성은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함께 돌봐주었던 아이들도 이제 서로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적이 되어 버렸다.

2013년 선출된 교황 프란치스코는 '복

음의 기쁨'(Evangeli Gaudium)이라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교황은 이 권고를 통해 현대의 고삐 풀린 '소비주의'와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저서에서 "오늘날 우리는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에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나이는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것은 바로 배척입니다"고 말했다. 교황은 돈의 노예가 되어 무너져 버린 인간성 회복을 위해 세상을 향해 외쳤던 것이다.

2000년 전 예수가 세상에 오시어 당신 몸을 바쳤던 이유는 인간 구원이었다. 예수는 노예로부터의 해방, 곧 인간의 자유와 생명을 위해 희생하셨다. 결국 그는 물질의 우상과 경쟁으로 무너져버린 인간성 회복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바치시고 부활하셨다.

2019년 기해년 우리의 삶이 소박한 삶, 거짓 없고 꾸밈없는 순수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 특히 청소년들이 새해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답하면 좋겠다. 그에 앞서 어른들이 먼저 청소년들을 위해 즐거움과 행복의 답을 살아내야 할 것이다.

社說

'나주 SRF' 거버넌스 출범 이젠 해법 찾아야

나주 SRF(고형 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가 출범과 함께 어제 첫 회의를 가졌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고형 폐기물을 대위 빗가람 혁신도시에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로 1년째 가동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 가운데 하나이다.

위원회를 꾸리게 된 것은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가동 강행과 주민들의 반발이 맞서면서 갈등을 빚어 왔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등 행정기관과 이해 당사자인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가동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참여했고 이들을 대변할 전문가들도 대외 테이블에 앉았다. 여기에 법률·경영·환경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자문단도 운영하기로 해 해법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는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난제임에 분명하다. 난방공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전소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동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주민들의 건강이 담보되지 않는 한 가동은 불가하다며 평행선을 달려 왔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그 사이에 끼여 어정쩡한 행정을 한 것도 갈등을 빚게 된 원인이다.

지역난방공사와 행정기관은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해 여기까지 오게 됐다. 관건은 핵심 쟁점인 지역난방공사가 주장하는 '환경성 조사'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주민수용성 조사'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긍정적인 것은 이해 당사자가 대외 테이블에 앉았고 여기에 행정기관과 전문가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점이다.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 만큼 허심탄회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해법을 찾는 자세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친일 잔재 청산도 좋지만 '다크 투어' 활용을

광주시가 어제 '광주 친일 잔재 조사 결과 및 활용 방안 제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교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수행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출신 친일 인사 관련 유적이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광주 시내 주요 대학과 일선 중·고등학교 15개교 교가 역시 친일 음악가들이 작사·작곡한 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펴낸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광주·전남 출신 친일 인사는 156명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에 사법, 경찰, 관료, 교육, 경제, 음악 부문에 종사하며 일제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했다. 당시 이들과 관련된 선전비와 비파, 부도탑, 누정 현판·시문 등이 곳곳에 세워지고 내걸렸지만 해방 이후 지금껏 방치돼 온 것이다. 특히 친일 음악가의 손에서 만들어진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교가 또한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교육 현장에서 불러 왔다.

올해는 3·1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 어느 해보다 상징적이고 의미 깊은 해인데 광주·전남 지역에 남아 있는 친일 잔재가 이렇게 많았다는 충격적이다. 해방 이후 친일 잔재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결과일 것이다. 제때 인적·물적 친일 잔재 청산을 못하면서 한국 현대사는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 냉정히 생각해 본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옛 조선총독부 청사처럼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요즘은 목포, 벌교, 군산 등지에서 보듯, 아픈 과거의 공간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다크 투어리즘'이 활발하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네거티브 유산'을 통해 한국 역사를 새롭게 배우는 것이다. 뒤늦었지만 이제 광주시가 친일 잔재 시설물을 어떤 방식으로 청산하거나 활용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치열하게 승부를 다투는 스포츠 세계에서 순간순간 '운명의 장난'처럼 재앙이나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른바 '저주'라 불리는 징크스다. 미국 프로 야구 보스턴 레드삭스는 '밤비노의 저주'에 86년간 시달렸고 시카고 컵스는 '염소의 저주'를 겪는 데 무려 108년이 걸렸다.

축구에서 가장 유명한 건 '펠레의 저주'다. 펠레가 칭찬한 선수 또는 우승을 예상한 팀은 부진한 반면 혹평을 받은 팀은 선전하는 기이한 현상을 말한다. '입만 다물고 있으면 시

을 요구했다. 급기야 메달을 제작한 금은방 주인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는 "도금 값밖에 안 되는 돈을 받아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축구협회는 선수들에게 "나중에 돈이 생기면 진짜 금메달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반세기 넘게 지켜지지 않았고, 그동안 한국은 불운까지 겹치면서 네 번의 결승전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다. 협회는 2014년에야 23개의 순금 메달을 제작해 전달했다. 그러나 1960년 우승 멤버들의 대부분이 세상을 떠난 뒤였다. 결국 17개의 금메

가짜 금메달의 저주

달은 유족마저 없어 아직까지도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국은 엇그제 열린 2019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약체 필리핀에 1-0으로 간신히 승리했다. 하지만 팀의 두기동인 기성용과 이재성의 부상 악재를 만났다. 에이스 손흥민이 중국전부터 합류하게 되지만 초반부터 비상이 걸린 셈이다. 벤투호는 과연 '가짜 금메달의 저주'를 풀고,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

/유재관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기고

초고층 개발 시대, 고도 제한과 다양성



손승방
동신대 건축공학과 교수

도시의 경제는 그 도시에 매력적인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시대가 되었다. 획일화된 도시는 매력적인 도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관심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생활 환경 인프라이며, 경제활동의 인프라다.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을 것이다. 경관법은 도시 계획과 건축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제정되었고,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개발 사업은 도시계획법 안에서 개발을 보장하되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과 도시가 되는데 기여해야 한다. 도시 공공성을 지키는 기준으로 가장 기여도가 큰 것은 도로다. 도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

을 해왔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2015년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 사선 제한 기준을 폐지한다. 도시 경관이 바람직하지 못한 건축물을 양산하고, 개발 경제성을 낮춘다는 이유였다. 그 이후 도시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적어도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는 자유주의가 되었다. 도로가 가지는 인프라의 용량과는 상관없이 토지 면적과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하여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다. 개발 이익은 상당히 확대되었으나 그 건축물에 거주하는 생활자, 건물들로 이루어지는 도시 환경, 도시 경관은 과거에 비하여 훨씬 열악하게 되었고 적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혼란이 야기되었다.

도시 관리 기준과 시스템은 공공성을 위한 기준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동의되어야 한다. 맞으면 도로 경계선에서 도로 폭의 1.5배로 정했던 기준이 폐지된 이후 도시 관리 시스템은 이전에 비하여 과밀 개발을 부추겼다.

시각적으로 보면, 도시 과밀은 건축물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정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피상적으로 보면, 건물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한다. 맞는 얘기지만 본질을 벗어난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건축물의 높이는 토지 면

적, 토지가 도로에 면한 폭과 깊이, 도로의 폭 등 조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토지가 아주 넓으면, 고층이 될 수 없다. 도로의 사선 제한 기준, 인접하는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기준으로 변화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건축물의 높이는 도로와 토지의 조건에 따라 공간의 개방성, 도로의 인프라 지원의 용량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시가 획일적으로 변화해 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도시 계획의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입계선이 적용될 때이다. 도시 중심 지역에는 도로에 면하여 최저층고, 최고 높이가 적용되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적용될 때 획일성을 강요하는 기준으로 작동된다.

단지 개발은 여러 개의 건축물로 구성된다. 이때에 고도 제한은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관계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최고 높이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결과는 동일한 높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축물이 반복되는 프로젝트가 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아파트 단지 계획과 상업 지역 등의 개발이다. 결과는 획일적인 도시 그리고 건축이며, 누구나 아름답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획일적 디자인의 배

경에는 건축과 도시를 설계하는 기준 적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획일성을 피하는 방법은 조건에 따라 다양한 해법이 있을 수 있게 된다.

도시 계획과 도시 경관 계획은 이러한 다양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는 프로젝트의 다양한 디자인 시뮬레이션의 경험이 필요하고, 그러한 다양성이 보장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사업 계획을 평가하는 행정에서도 그러한 시각에서 평가 자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규모 단지 계획 프로젝트, 여러 개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건축물은 최고 높이를 검토하고, 다양성이 적용되도록 하는 기준이 있다. 단지 내 건축물들의 평균 최고 높이, 평균 최고 층수로 적용되어야 한다. 일단의 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의 변화는 도시 경관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건축물 디자인에서 대지와 만나는 부분과 스카이라인을 디자인하면 그 건축물의 반을 디자인하는 것과 같다(C. Williams). 고층 건축물일수록 그 시각적인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선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에ditorial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건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